

Jean Michel Basquiat의 그래피티(Graffiti)를 응용한 패션페인팅

The Application of Jean Michel Basquiat's Graffiti to Fashion Painting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장 애 란
강 사 고 은 숙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e-Ran Jang
Lecturer : Eun-Suk Ko

◀ 목 차 ▶

I. 서론	응용한 패션페인팅
II. 이론적 배경	IV. 결론
III.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참고문헌

< Abstract >

Graffiti has been recognized as an art form since the influence of free, black culture and Neo-Expressionism in the 1980s, though Graffiti remains the subject of controvers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Modern Art. Jean Michel Basquiat is the most famous Graffiti artist of the '80. He was regarded as the genius and star of American art, leaving a lot of experimental and creative works during his short, 9-year, creative period. In his works, Basquiat well expressed the isolated and dark shadows in the U. S., the pursuit of self identification, the purpose of expression and the epochally social phenomen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Jean Michel Basquiat's Graffiti to fashion painting. To achieve this purpose, we present a lot of fashion painting works which apply Jean Michel Basquiat's Graffiti by focusing on autographic experience, racialism, cartoon themes, money value, and anatomical death in the characteristics of Basquiat's works. Through this process, we can express and apply Basquiat's Graffiti to fashion painting by analogizing the themes and modeling the methods of his works, such as childish and simple features, intentionally wrong spellings and sentences, and symbols of death including skeletons, intestines, bones and teeth. In addition, Basquiat's techniques are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representational handling of a brush, primitive and strong colors, and maximized shape. This study found that fashion painting can juxtaposes art and fashion by expressing Jean Michel Basquiat's Graffiti.

주제어(Key Words):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그래피티(Graffiti), 패션페인팅(Fashion Painting)

1. 서론

현대미술에서 추구되는 미술양식은 시대적, 사회적 정신을 반영하고 이를 재편성·발전·수정하여 새로운 통용어가 됨으로써 비(非)미술영역에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간접적 문화의 주제로 대치하려는 시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를 이용한 미술의 확장은 한 시대의 인간의 삶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수단의 일종인 패션에 미술 사조가 반영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낙서화로, 현대패션에서 팝아트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그래피티(Graffiti)의 표현기법이 바로 낙서 미술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피티란 그래피토(Graffito)의 복수형 단어로서,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으로 건물 벽에 아무렇게나 쓴 글씨나 조잡한 그림을 말한다. 그래피티는 가난한 사람과 흑인 등 억눌린 소외집단들이 도시의 벽에 강한 원색과 속도감 있는 문양을 새김으로써 그들의 에너지를 분출한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초창기의 그래피티는 낙서 취급을 당하였지만, 1980년대 신표현주의 및 자유분방했던 미국 내 흑인들의 힙합(Hip-hop)문화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더 이상 흑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키스 헤링(Keith Haring),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같은 그래피티 전문가들의 등장으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즉 1970년대 초 뉴욕의 지하철과 빈민가의 벽에 그려진 풍자적인 낙서에서 시작되어 뉴욕 미술계에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미술계의 뉴페인팅 운동이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대중과 친밀한 도시 거리의 예술(Street Art)로 인정받게 되어 도시 깊숙이 침투한 행위예술이 되었다. 대표적인 낙서화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는 흑인이라는 인종적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이슈는 물론 부모의 이혼 후 빈민가에서 널빤지를 깔고 생활함에 따라 미국 80년대의 이혼, 소년들의 가출, 마약,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한 내용을 낙서라는 매개를 통해 더욱 민감하게 표출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상징적 언어로서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표현하였다. 결국 바스키아는 독특하고 강렬한 표현방식과 예리한 내용의 서술성을 갖는 작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의 작품에 다양한 문화와 여러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편견 속에서의 유색인종으로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어려움과 소수 편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그래피티가 패션에도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데 활용되었다. 즉 1985년 처음으로 반(反)패션 운동에 참여한 일부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래피티를 응용한 낙서 무늬가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 예로, 1980년대 비비

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키스 헤링과 공동으로 그래피티 디자인을 발표하였고, 스티븐 스프라우스(Stephen Sprouse)는 그래피티 무늬를 실크 스크린의 프린트 무늬로 제시하였으며 카스텔바자크(J. C. de Castelbajac)도 그래피티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의 팝아트적 이미지표현으로 행위예술의 일종인 그래피티를 응용하는 방법을 규명하고자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세계를 바탕으로 그래피티 이론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함은 물론 실증적으로 그래피티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패션페인팅을 이용하여 실제 작품을 제시한다. 패션페인팅은 재활용 측면과 예술적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이론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바스키아 회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바스키아 회화의 주제 및 회화기법 등을 고찰한 후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패션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패션페인팅을 이용한 그래피티 실제작품을 제시함으로써, 그래피티를 패션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접목시키는 방법으로서의 패션페인팅에 대한 의미도 재규명함에 있다. 이로써 팝아트적 이미지 표현에 그래피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패션페인팅의 개념 정립은 물론 패션디자인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래피티의 다양한 기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미래 패션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라 사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및 그래피티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스키아의 대표적인 주제 및 조형기법을 유추하며, 그래피티의 표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페인팅의 개념 및 기법을 재정립한다. 2차적으로 실증적인 팝아트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그래피티를 재해석·응용하여, 팝아트의 대중적 문화 코드를 대변하는 티셔츠와 진을 소재로 이지플로(B Z Flo) 직물용 페인트, 칼라라이트(Colorites) 페인트, 페베오(Pebeo) 페인트를 이용한 패션페인팅 실제작품을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유추한 주제별로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 미셸 바스키아(1960~1988)의 작품 세계

바스키아는 1960년 뉴욕의 브룩클린에서 푸에르토리코 태생인 어머니(Matilde Andradas)와 하이티 섬의 태생인 아버지(Gerard Basquiat Andradas) 사이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부모 이혼으로 17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비록 미술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18세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바스키아는 인종차별에 대한 울분으로 뉴욕 지하철역에 원시미술과 같은 그림을 마구 그렸는데 그것이 우연히 평론가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낙서화의 일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낙서화의 장르적 한계를 초월한 독자적인 화풍으로도 주목받았다. 바스키아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를 존경하였고 장 뒤뷔페(Jean Dubuffet),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사이 톰블리(Cy Twombly) 등 20세기 미술가들이 이룩한 회화양식과 기법들을 흡수하였다. 또한 랩 아티스트들과의 친분을 통해 79년에는 몇몇 멤버를 모아 직접 「그레이」라는 밴드를 조직하여 클라리넷과 신시사이저를 연주하는 등 예술간의 경계를 넘는 자유분방함과 재능을 드러낸 현대적인 젊은 예술가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바스키아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동기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바스키아의 8세 때 교통사고이다. 바스키아는 교통사고로 인해 팔의 골조상과 내장을 다쳐 비장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 당시 병원 입원 중 어머니가 선물한 「그레이의 해부학(Gray's Anatomy)」책이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평생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드로잉과 회화작품에 내장들, 팔, 손, 뼈와 같은 해부학적 소재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바스키아는 가장 좋아했던 책인 윌리엄 버로우스(William Burroughs)의 「정키(Junky, 1953)」에서 작가의 언어에 대한 과격한 사용, 극단성, 단어들에 대한 탐욕,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반항심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과 주위를 대변하는 언어의 재발명 및 사용이 작품에 단어들을 붓 터치처럼 즐겨 쓰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셋째, 바스키아는 재즈와 같은 비트 세대와 흑인영웅에게서 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흑인영웅은 똑같은 것을 다시 연주하지 않는 색소폰 재즈 연주가 찰리 파커(Charlie Parker)였다. 넷째, 바스키아 예술에서 가장 핵심적 영향은 82년부터 87년까지 교류했던 앤디 워홀(Andrew Warhol)일 것이다. 바스키아가 출생했던 1960년에 팝아트를 처음 시작했던 앤디 워홀은 종전의 인기 상품을 자신의 예술의 실재적 소재나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상업 작가로서 상업적이고 간결한 작품의 다수성, 즉 그가 작업한 사진을 이용한 많은 실크스크린이 모두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하여 미술과 경제를 통합시켰던 예술가였다. 반면 바스키아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긴 하지만 창조적인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워홀은 바스키아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은 공동작업을 통하여 팝아트의 이미지와 미국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바스키아의 9년 작품 세계를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시기인 1980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해골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도덕적인 관념을 표현하였고, 자동차, 빌딩, 경찰, 게임, 벽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리의 삶을 나타냈다. 두 번째 시기인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여러 판넬에 그림을 그렸으며, 흑인이면서 남미 스페인계로서의 정체성을 각각의 캔버스에 글과 콜라주, 연결되지 않은 그림 등으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1986년부터 1988년 사망 직전까지는 다른 상징물들, 다른 내용, 그리고 새로운 회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묘사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바스키아 회화의 주 소재는 인물(흑인영웅)과 신체 해부도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즉, 색을 띤 거대한 화면은 아프리카의 가면과 같은 얼굴을 지닌 현대인의 이기적이고 도식적인 군상으로 채워져 있다. 그 인물들은 주변에 배치된 각종 단어와 문구, 화살표와 눈금, 왕관 등 상징적인 표현과 대비되면서 내면은 텅 빈 채 잘난 체하는 현대인을 비웃는 듯한 표현이다. 더불어 바스키아의 회화에 자주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권투선수 슈가 레이 로빈슨(Sugar Ray Robinson), 야구선수 헝크 아론(Hank Aaron), 재즈연주가 찰리 파커 등 흑인영웅들이다. 그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를 연상시키는 콜라주된 팔, 다리 등 분리된 신체는 물론 미국 대중문화의 산물인 베티맨과 로빈, 워너브라더스의 로고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반복되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바스키아 회화는 투박하지만 원시적 생명력이 넘쳐 오히려 사회 지배력의 실체와 갈등에 대한 시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문화코드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바스키아 회화를 살펴본 결과, 자전적인 이야기와 흑인 영웅, 만화, 해부학, 낙서, 죽음 등이 작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바스키아는 날카로운 사회비판자로서 자신의 작품에 카리브 해의 선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산, 인종차별의 이미지들을 가득 담았다. 다른 한편으로, 부호와 글자, 문장,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단순하고 힘찬 선과 형태로 이루어진 그림은 선의 원시성과 기묘한 세련됨, 즉흥성과 제어력, 기지와 야만성 같은 상충된 개념과 힘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래피티(Graffiti)

바스키아가 작품 활동을 하였던 1980년대의 미술사조는 표현적 붓 칠이나 강렬한 원색의 부활, 형상의 극대화 등이 초래되어 격렬한 회화라고도 칭한 신표현주의와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정식 미술로 받아들여지게 된 낙서화였다. 많은 젊은 작가들은 미니멀리즘의 순수주의로 인해 한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기호, 형태들 중에서 가장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 낙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낙서는 로고와 휘갈겨 쓴 인 용구가 혼합되어 자기표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사회 현실과

밀착된 작가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 되었다.

낙서 즉 그래피티는 원래 고고학 용어로서, 인디언들의 암벽화나 로마 카타콤의 벽에 새겨진 암호문자들, 이집트 무덤 벽면의 글자들에서 유래된 그림과 문자 또는 문양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그래피티의 의미는 기계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저항심리나 소외된 계층의 자기표현 욕구가 반영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각각 조명됨에 따라 공공장소에 아무렇게나 쓰여진 낙서, 낙서 무늬를 뜻한다.

그래피티는 아무도 모르게 재빠른 터치로 그려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로운 논리원칙을 거치지 않고 순수한 감정이 바로 거침없이 표현되는 낙서 특유의 조형양식이 형성되어 의외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그래피티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는 욕망과 낙서를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처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억눌린 계층들이 있는 지역에 낙서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낙서를 억눌린 자들의 심리적 갈등이 표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바스키아도 뉴욕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렸던 낙서그림에서 시작되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진정한 낙서화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SAMO작품을 낙서미술이라기 보다는 대중적 시 또는 개념미술의 형태로 인식하였다. 1980~1981년도에는 거칠고 지나치게 물감으로 범벅된 도시 벽을 낙서화로 재현하였다. 즉 깊이감이나 이야기, 상대적 크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2차원적 화면은 광적이고 추상적이며, 하나의 캔버스를 신속하고 산만한 이미지들로 채워진 검정색의 넓은 면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바스키아의 특이한 점은 전시 오프닝 전날 밤에 소호의 갤러리 벽면에 작품을 그렸는데, 이는 낙서화의 아웃사이드 작품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도시에 고취된 사실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도전이었다.

따라서 신표현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표현적 붓 칠'이 작품 전반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1979년에 제작된 엽서에서 볼 수 있다. 즉, 사진과 인쇄물을 콜라주하고 화면을 4등분으로 나눈 후 각 면마다 서로 다른 텍스트를 부여하거나 반복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얇은 붓이나 크레용, 오일스틱, 납적한 붓 등으로 자신만의 표현적 붓 칠로 감각적 드로잉을 구사하였다.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제작된 작품들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표현적 붓 터치로 구성되었다. 둘째, 바스키아의 작품은 자유로운 붓 터치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원시적이고 강렬한 색채로 구성되었다. '강렬한 원색의 부활'은 바스키아의 드로잉 작품을 제외한 모든 회화에서 볼 수 있으며, 고희, 고갱, 마티스보다 더 강렬하고 개성 있는 색을 사용하였다. 특히 후반기 작품

들에 화려하고 강렬한 색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레드, 옐로우, 블루의 세 가지 원색이 블랙과 대비되면서 더욱 강한 힘이 발휘되어 표현주의적 이미지 전달에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낳았다. 또한 바스키아는 의도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색들을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써 화면을 어떤 색들로 구성하겠다는 계획 없이 약간은 즉흥적으로 힙합리듬을 타면서 랩을 하듯이 증얼증얼 채워나갔다. 셋째, 바스키아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낙서의 속성상 과장되고 상징적인, 또는 직설적으로 과장된 '형상의 극대화'이다.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작품은 블랙색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블랙 이외의 다른 색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 속의 주인공 대부분이 블랙색상이고, 바스키아의 블랙색상은 바로 '흑인 Negro'를 상징하였다. 그래서 소외된 흑인들의 두상을 검은 타원이나 또는 해부학적 요소로 표현하였고, 비참하고 절규하는 듯한 강한 이미지, 비웃는 듯한 단순한 형상 등을 교묘히 사회 고발적이고 시위하는 듯한 이미지로 극대화시켰다. 넷째, 바스키아는 작품 속에 기호, 색상, 선 등을 사용하여 구체화된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현대미술의 언어와 기호, 상징적인 것들이 의미전달을 위한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전달을 위한 기호로서의 문자가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그 뜻하는 내용, 혹은 손으로 쓴 필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상태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미술작품 속에 삽입되고 있다. 따라서 바스키아도 의미전달을 위한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그 예로 가치, 신빙성, 소유권 등의 의미로 라는 표시를 자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바스키아의 그래피티에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흥미나 정열들, 실제 내용물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상징들의 기호로 가득 차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한 상징적 기호들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상과 같은 상징적 기호들은 대부분 문헌에서 얻은 정보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특히 아프리카 벽화 미술책의 그림들에서 아프리카 지역성과 상징적 기호들을 자신의 회화에 신포나 낙서와 연관시킨 이미지로 만들었다.

3. 패션페인팅(Fashion Painting)의 개념

1960년대 팝아트 패션의 출현은 예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패션페인팅의 실크스크린 기법이 산업화와 맞물려서 소비문화적이고 대중 문화적이며 통속적인 팝아트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어 대중에게 순수예술과 복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 계기가 되었다. 팝아트가 현대패션에 미친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선명한 색으로 대조된 배색과 단순한 기하학적 모티브를 배열하고 회화적인 효과의 표출이며, 기호, 숫자, 지도 그리고 그래피티의 표현기법이 즐겨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팝아트

〈표 1〉 바스키아 그래피티의 상징적 기호

상징적 기호	의 미
One Cent, Dollar, Bill Andrew Jackson, Tax Free	돈
Peso, ©, Estimated Value, 100%, Notary, Registered Trade Mark	가치, 신빙성, 소유권
Petroleum, Gold, Platinum, Cotton, Salt, Tobacco, Alcohol, Heroin	상품, 현금조작
Pig, Pork, Ribs, Lard, Chicken, Eggs, Cows, Milk, Poultry	식품배급
Malcolm X, Langston Hughes, Marcus Garvey	역사적 흑인 인물
Hank Aaron, Jesse Owens, Sugar Ray Robinson, Dizzy Gillespie, Charlie Parker	흑인 영웅들
Missionaries, Poachers, Cortez, Bishop Landau, Vasco Da Gama, Buffalo Bill Cody	억압과 인종말살
Slave, Slave Ships, Dark Continent Negroes, Mississippi, Harlem, Ghetto, Amos And Andy, Hollywood Africans	인종주의에 대한 언급
Warner Brothers, A.A.P, Action Comics, Mad, Marvel Comics, Disney, Batman and Robin, Dick Tracy and Pruneface, Superman and Jimmy Olsen	영화나 만화인물들
Onion Gum, Skin Head Wig, Black Face Soap, X-Ray Glasses	만화책에 나온 농담, 속어
Pez, Jerry Pop, Corn Puaas, Black Cherry Soda	잡동사니 음식

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현대 도시의 한 단면인 상업주의와 소비세계를 투영하는 이미지를 수용한 상품이나 상표, 지폐를 복식의 테마로 삼아 현대패션 디자인에 신선한 감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즉, 광고, 상표, 만화, 영화 등의 대중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이미지를 대중화하는 작업을 실크스크린의 복제기법을 이용하여 패션페인팅함으로써 팝아트의 의명성, 대중성, 통속성이 현대패션에 표출되고 있다. 특히 실크스크린의 판화기법은 특별한 사건의 연속적 복제를 통하여 특수하고 소킹한 이미지를 일상적이고 둔감한 것으로 바꿔놓아 팝아트적 이미지를 잘 드러냄은 물론 텍스타일 디자인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패션페인팅이란 간단한 기호나 문자에서부터 복잡한 자연, 인물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디자인을 전통의상이나 현대의상 또는 직물을 이용한 인테리어용품 등에 페인팅 안료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 장식 기법을 말한다. 패션페인팅은 직물, 의류, 목재가공물, 유리, 금속 등 어떠한 소재에도 쉽게 표현, 응용이 가능하며, 오늘날에는 의류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패션페인팅은 도자기, 가방, 벽, 전자제품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에 페인팅하는 것을 핸드페인팅이라고 한다.

따라서 패션페인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용이성이다. 페인팅에 쓰이는 안료는 튜브 끝에 달린 볼 포인트 칩으로 물감이 나오는 펜 타입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함은 물론 누구나 손쉽게 소재에 원하는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다. 둘째, 소재의 다양성이다. 패션페인팅의 소재에는 제한이 없어 의복류를 비롯한 직물은 물론 착색이 불가능했던 유리나 나무, 비누, 심지어 금속표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패션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안료

의 영구성이다. 패션페인팅에 사용되는 직물용 안료는 기존의 안료들과는 달리 보조제나 마감제 등의 전후 처리과정이 필요 없으며 착색 후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표백 등에도 전혀 탈색이나 변색되지 않는다. 넷째, 안료의 안정성이다. 패션페인팅에 사용되는 안료성분은 일반 페인트 성분과는 달리 무해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용품이나 주방용품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패션페인팅의 특징을 기본으로 본 연구의 실제 작품에 사용될 안료의 종류 및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지 플로(E Z Flo) 직물용 페인트

패션페인팅의 가장 기본적인 유성안료로 볼 포인트 칩이 달려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착색과정에 보조제가 필요 없는 안료이다. 이것은 직물 이외에도 원목, 도자기, 유리 등 어떠한 소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칠해서 착색이 되면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표백에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는다.

2) 칼라라이트(Colorites) 페인트

칼라라이트 페인트는 질은 색상의 소재나 스텐실 기법 등에 효과적인 안료로, 모든 섬유, 가죽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청바지처럼 질은 의상이나 직물에 사용할 경우 색상이 뚜렷한 특징이 있어 화려하고 밝은 색상 표현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에서 안료를 짜내어 붓으로 색칠을 하거나 튜브에 파인 라인 칩을 끼워 직접 직물에 짤 다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단, 사용 시 칼라라이트 페인트는 물을 타서 묽게 하면 페인트의 접착성분이 파괴되므로 색을 연하게 하고자 할 때는 칼라라이트 엑스텐더(희석제)를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색상 혼합이 자유롭지만 칼라라이트 페인트를 칠한 곳에는 다른 종류의 페인트를 덧칠해서는 안 된다.

또한 페인트칠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90초 동안 열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덧천을 대고 페인팅한 곳을 눌러주는 식의 다림질을 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세탁 전에 거쳐야 하지만, 가족에 사용할 경우나 입체안료를 70%이상 섞어 사용할 경우에는 열처리가 필요 없다.

3) 페베오(Pebeo) 페인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성(water-based) 페인트로서, 구타(gutta)와 세타칼라(setacolor)의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직물에 염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구타는 붓을 사용하지 않고 얇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 방법은 손에 힘을 주어 안료 튜브의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안료로 직접 그릴 수 있으므로 글씨를 적어 넣거나 그림의 라인을 덧칠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세타칼라는 면을 칠할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붓을 이용하여 그리므로 다양한 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 수성인 구타나 세타칼라는 마르기 전에 물로 지울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덧칠이 가능하고 색상 혼합이 용이하다. 색을 칠하고 잘 말린 후에 뒷면을 다림질(면 다림질 온도 160~180℃로 2~3분)을 하면 안료가 고정된다. 다만 한 번 마른 후에는 그림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수정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마르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한다.

III.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응용한 패션페인팅

1. 자전적 경험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는 1980년부터 1982년 중반까지의 초기 작품에서 많이 보인다. 즉 자동차, 지붕 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는 도시건물들의 스카이라인, 건물 외관의 상업적 광고들, 비행기 그리고 하늘의 달과 같이 친숙한 소재들

로 묘사하였고, 그 외에 왕관, 공증인의 도장, 저작권 상징과 같은 자신만의 중요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많이 도입하였다. 왕관은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존경과 찬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바스키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공증 도장은 1977-79년 SAMO 문구들에 도입했던 저작권 상징의 연장이며, ©는 승인, 권위, 소유권 그리고 진품임을 나타내는 바스키아 자신의 도장이다. 이러한 소재들을 통하여 아이디어 소유권의 개념을 풍자하면서 합법성, 권위, 소유권에 대한 강박관념을 조롱하듯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작품에 인정, 승인, 독창성을 부여하였다.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는 1981년 'Untitled - RedMan' (그림 1)에 잘 묘사되어 있다. 즉, 내장기관을 암시하는 얼룩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윤곽선 인물이 마치 경찰관이 끌어난 부상자나 죽은 시체의 윤곽선처럼 보인다. 왕관은 오른쪽 하단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구급차는 바스키아가 7세 때 브룩클린 거리에서 공놀이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경험에서 상기된 것으로, 이러한 자전적 경험은 바스키아에겐 잊지 못한 사건이기에 초기 작품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바스키아 자신에 관한 극적 이야기는 'Acque Pericolose - Poison Oasis' (1981) (그림 2)에 잘 표현되어 있다. 화면 중앙에 후광을 두른 검정색의 인물이 양손을 가슴에 두르고 서있으며 죽은 짐승의 시체 위에는 파리가 들끓고 푸른색의 '위험한 물'이 바로 옆에 있고, 반대편에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초록색의 방울뱀이 입을 벌린 채 독니를 드러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라는 위험한 환경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위험한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표현된 인물에는 바스키아 자신(당시 20세)의 특징인 냉정함, 자신감 그리고 확고함이 담겨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종종 자신을 더 직설적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즉 화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단순한 윤곽선에 눈과 입만 여백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검정으로 채운 후 삐죽삐죽한 머



〈그림 1〉 Untitled (Red Man) 1981



〈그림 2〉 Acque Pericolose - Poison Oasis, 1981

리가 마치 왕관처럼 보이는 자화상으로 자주 그렸다.

〈그림 3〉은 바스키아의 자전적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홀터 넥 스타일의 면 티셔츠에 구타로 LIBERTY, TEETH, BLOOD 등의 상징적 기호를 반복적으로 낙서하듯이 아무렇게나 적은 그래피티의 표현기법으로 페인팅한 작품이다. 또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전체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구타와 세타칼라로 페인팅 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양면성을 반영시키기 위해 레드, 그린, 옐로우 등의 색상대비로 도시생활의 활력과 야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조형기법인 거친 붓 터치와 아무렇게나 벽에 낙서해놓은 듯한 기법을 활용하여 그레이 색상으로 선의 효과를 위해 덧칠함으로써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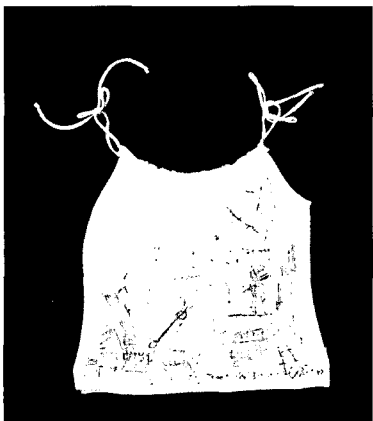
〈그림 4〉는 어깨가 드러나는 블랙 색상의 티셔츠에 바스키아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자전적 경험을 표현한 작품이다. 즉 연구자의 시간과 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손목시계 이미지를 차용하여 Time, Work 등의 상징적 기호를 적어 넣었다. 즉 앞면을 세로로 가로 지른 시계의 상단에 Top이라는 상징적 기호와 화살표를 그려 넣어 최고의 직업을 지향하는 연구자의 소망을 드러냈고, Work 등의 기호로 연구자의 노력과 현재의 모습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또한 앞면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시계에는 사회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를, 그리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통해 젊음과 시작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레드, 블루, 옐로우의 원색이 블랙과 만나면서 더욱 강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 표현을 위해 세타칼라의 거친 붓 터치와 황금색 구타를 동시에 사용하여 덧칠하였다.

〈그림 5〉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블루진 바지에 바스키아의 낙서화에 대한 개척정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즉 뉴욕의 도시 생활을 주제로 한 바스키아의 Empire(1983) 작품을 응용하

여 제작하였다. 청바지 한 쪽 다리 앞면 전부를 레드와 블루로 대비가 뚜렷하도록 페인팅하였고, 특히 모래를 뿌린 듯한 효과로 필이 들어간 황금색 세타칼라를 덧칠함으로써 청바지의 빛바랜 색상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뉴욕의 화려한 밤거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강렬한 색채대비와 넓은 붓 칠 및 라인의 섬세한 덧칠은 바스키아의 회화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바지 밑단에 블루색상을 이용하여 생동하는 기운을 묘사하였고, 그 위에 그려 넣은 엠파이어 빌딩을 통해 현대인의 바쁜 도시 생활을 상징하였고, 더불어 Love, 눈동자 등을 그 위에 덧그려 넣음으로써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갈증도 동시에 나타냈다.

2. 인종주의

바스키아가 가장 몰두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유명한 흑인 영웅의 운동선수들'과 '유명한 미국 재즈 음악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흑인 운동선수와 음악가, 노예와 남부 그리고 화가 자신의 경험과 역사에 관한 작품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인종주의가 바스키아의 작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주제라 사려된다. 예를 들어, 마네(Manet)의 '올림피아(Olympia)'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구성한 초기작품인 1982년 'Untitled - Maid from Olympia' 〈그림 6〉은 근대 서구 미술에서는 보기 힘든 흑인을 묘사하였던 마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흑인 인물과 하녀로서의 위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던 작품이다. 이처럼 바스키아는 데뷔부터 자신의 주제를 흑인은 물론 그 주제를 포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것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노예, 남부, 인종주의와 관련된 많은 작품 속에는 노예경매(Slave Auction), 검은 대륙(Dark Continent), 흑인(Negroes), 미시시피강(Mississippi), 할렘(Harlem), 게토(Ghetto)와 같은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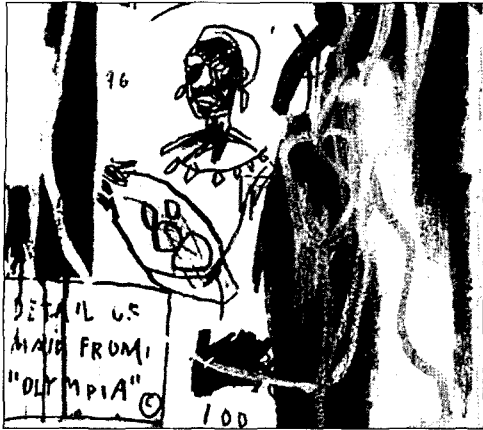
〈그림 3〉 바스키아의 자전적 경험을 응용, 2005



〈그림 4〉 연구자의 자전적 경험 표현, 2005



〈그림 5〉 Empire를 응용한 자전적 경험, 2005



〈그림 6〉 Untitled (Maid from Olympia), 1982



〈그림 7〉 인종주의에 대한 상징적 기호, 2005



〈그림 8〉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 2005

의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오직 흑인 차별과 편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정복, 억압, 종족 말살과 같은 모든 상징까지도 포괄하였다.

〈그림 7〉은 홀터 넥 티셔츠에 인종주의에 대한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즉 USA, AAAA ... 등의 상징적 기호를 전면배치한 것은 물론 black person, white person, yellow person이라는 문자를 적어 넣음으로써 인종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라크전, 자이툰 부대를 연상시키기 위한 태극기, 이라크전 배경의 하나로 보수적인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려진 교회 등을 무분별하게 나열함으로써 현대의 인종문제 및 종교분쟁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화이트 바탕 위에 기호들의 무작위적 배치는 바스키아의 낙서화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함이었으며, 형상을 극대화시킨 입술 위에 'help me'라는 문장을 통해 노골적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각 인종의 얼굴들을 낙서처럼 그려 원시벽화의 느낌도 표현하였다.

〈그림 8〉은 지퍼 포켓이 달린 진한 색상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억압된 노동환경과 인종주의 요소를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즉 NEGROES, DARK CONTINENT의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여 인종주의를 직접 표현하였고, 왼쪽 바지통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모양을, 오른쪽 바지통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을 세타칼라로 페인팅하여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들의 이주를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다크 블루에 가까운 바지색상과 대비되는 비비드한 옐로우로 과감하게 붓 칠하여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조형효과를 냈으며, 왼쪽 바지통에 화이트 색상의 구타를 이용한 꺾임 듯한 자국은 이주민들의 상처를 표현하면서도 황금색 구타로 전체를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반어적으로 극복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페인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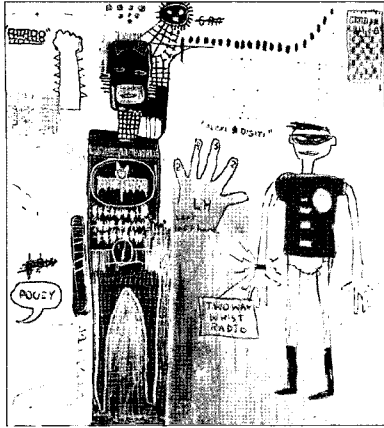
3. 만화테마

바스키아는 어린시절부터 만화를 매우 좋아하여 자신의 회화 및 드로잉 작품에 만화테마를 자유로이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1983년의 'Piano Lesson' 〈그림 9〉에 배트맨과 로빈 등 만화테마를 전적인 주제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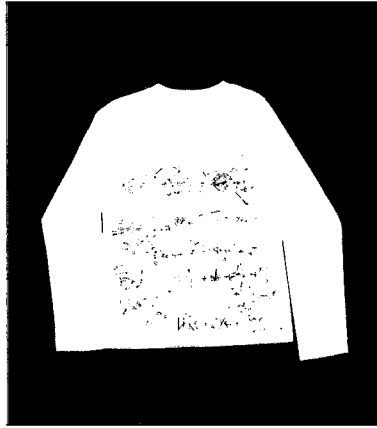
바스키아는 1980년대 중반 어린 시절과 소년기의 대중문화의 상징인 1960년대 초 만화 속의 영웅이나 만화 주인공, 대중스타를 주로 다루었다. 그래서 바스키아는 작품에 만화책과 만화영화 스튜디오(Action Comics, Marvel Comics, Disney, Warner Brothers, A.A.P., Mayer, Universal Studios), 만화와 만화책 주인공(Porky Pig, Superman, Jinny Olsen, Batman & Robin, Joker, Dick Tracy, Popeye), 만화책속의 장난 속인수(Union Gum, Skin Head Wig, Black Face Soap), 즉석식품(Pez Candy, Jiffy Pop Corn Puffs, Black Cherry Soda)과 같은 수많은 예들을 표현함으로써 어린이 만화 속에 반영된 세계를 사회 정치적 상황의 소우주로 보기도 하였다.

〈그림 10〉은 만화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색상의 V 넥 면 티셔츠에 만화에서 차용해온 도롱뇽, 공룡, 왕관 등을 그려 넣고, 바스키아의 자화상과 그의 이름을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바스키아의 만화테마에 대한 주제를 응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또한 그림을 그린 후 X 표시를 한 것은 마치 새로 칠한 벽에 낙서금지란 표시 위에 다시 X 표시를 하는 악동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낙서자의 이니셜을 새겨 넣음으로써 낙서자를 오히려 밝히려는 모순된 심리를 표현하였다. 특히 화이트색상의 티셔츠 앞면을 사각형으로 가득 채운 것은 벽에 몰래 낙서하는 기분을 최대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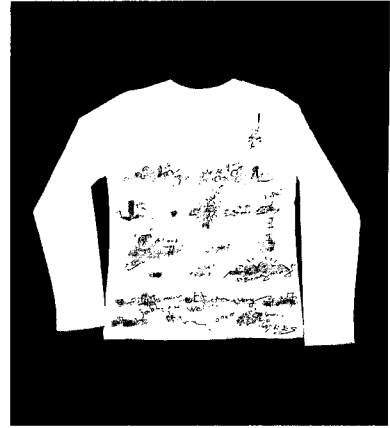
〈그림 11〉은 공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 전체를 구름이 떠다니는 듯하게 구성하였고



〈그림 9〉 Piano Lesson (for Chiara), 1983



〈그림 10〉 만화테마에 대한 주제 응용, 2005



〈그림 11〉 공상적인 만화 테마 응용, 2005

COMICS, DISNEY 등의 문자를 직접 언급하여 만화테마임을 드러냈으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의미하는 love, yes or no 등을 표기하여 현대인의 사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4. 금전적 가치

바스키아는 권력과 부의 생성, 남용, 자원, 동물, 농산물의 가치와 이용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전달해줄 수 있는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여 작품 속에 삽입하였다. 즉, Five Cents, Dollar Bill, Five Thousand Dollars, Liberty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금전적 가치와 사물의 가치에 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앤디워홀과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에서 워홀의 Arm & Hammer 상표를 물감으로 지우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흑인 재즈 음악가를 그려 넣은 1센트 동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다(그림 12). 그리고 바스키아의 관심에는 왕관(Peso Neto), 추정 가

치(Estimated Value), 면세(Tax Free), 100%,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와 같은 가치와 진위성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느낀 호기심은 음식 생산과 그것의 조절, 보급과 이득에 대한 것이었고, 석유와 그 부산물, 닭과 달걀에 대한 잦은 언급은 무역과 사고파는 거래에 대한 바스키아의 관심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은 광목소재의 V넥 면 티셔츠에 cents, sale, \$, won, money 등 금전적 가치에 대한 바스키아의 상징적 기호를 직접 표현한 작품이다. 상단 부분에 여인 형상에 눈물이 얼룩진 듯하게 그래피티한 것은 금전적 가치와 물질만능주의에 벽찬 힘든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자 함이다. 또한 아무렇게나 낙서한 듯한 문자의 무작위적 배치와 얼룩진 듯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옐로우 계열의 안료로 전체적으로 페인팅함으로써 상황적인 우울함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림 14〉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그림 12〉 Untitled (collaboration with Andy Warhol), 1984



〈그림 13〉 아이러니한 금전적 가치 표현, 2005



〈그림 14〉 색채대비를 이용한 금전적 가치 표현, 2005

강렬한 색채대비를 통해 금전적 가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즉, CENT, DOLLAR, ONE, COIN 등을 화이트로 입체감이 나도록 적어 넣음으로써 금전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동심원은 강렬한 붉은색의 세타칼라로 반복적으로 넓은 붓 칠을 하고 그 위에 황금색의 구타로 섬세한 덧칠을 함으로써 재구성한 동전의 형상을 극대화한 것이다. 금전에 대한 욕망은 블루색상을 이용하여 대담하고 거친 붓 터치로 질주하는 세로선의 형상으로 극대화시켰다. 전체적으로 강렬한 원색대비,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붓칠, 형상의 극대화를 통해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기법을 직접적으로 응용한 작품이다.

5. 해부학과 죽음

어린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레이 해부학」 책은 바스키아에게 인체의 골격 구조에 대한 관심을 평생 가질 정도로 강하고도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으며, 회화와 드로잉 작품 속의 많은 이미지들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 표현에 색채를 배제한 것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 제거되었던 비장(Spl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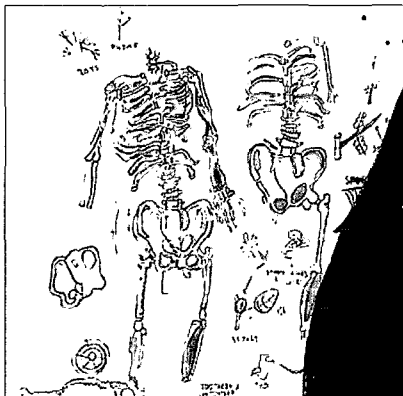
이라는 명칭을 적어 자신을 암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966년 뉴욕 레이널사에서 출판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방대한 책 역시 해부학에 흥미를 끌게 하였고, 폴 리처(Paul Richer)의 『예술적 해부학(Artistic Anatomy)』은 작품에 폐, 심장, 두뇌, 팔, 다리, 발과 같은 내장기관을 드로잉과 회화에 이용하게 하였다. 그 중 레오나르도의 책이 해부학적 작품의 대부분 자료를 제공해주었으며, 그 예로 1986년 작품 「Untitled」 <그림 15>에서 그 특정한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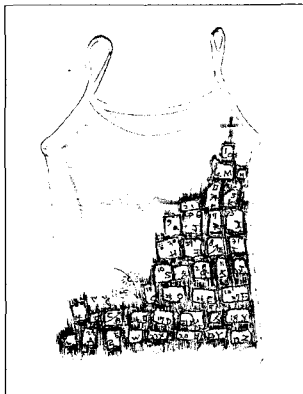
죽음이라는 주제 역시 바스키아 작품에 편재된 주제이다. 초기 작품의 거칠게 잘려진 머리와 가면 같은 얼굴들은 데드 마스크나 해골의 불길한 느낌을 항상 전달하며, 속이 빈 눈이나 드러난 이빨은 여윈 머리 또는 부패된 해골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해골과 뼈의 잿은 표현은 해부학적 이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묘지, 유령의 집, 부두교 묘지와 죽음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준다. 1987-88년 후기 작품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더 자주 그리고 더 직접적인 암시로 다루었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림 16>은 그레이 색상의 민소매 티셔츠에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붉은 색 십자가를 맨 위에 그려 넣어 묘지를 상징한 작품이다. 키보드가 연상된 것처럼 숫자, 영문, 한글이 적힌 화이트 사각형을 차곡차곡 쌓은 듯하게 페인팅하였고, 블랙 구타로 이들 사이사이의 면을 채워 전체적으로는 교외의 공동묘지 같으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의 느낌을 살리도록 페인팅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그림 17>은 블랙색상의 면 티셔츠를 이용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반어적으로 경쾌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즉 위에서 아래로 길이를 다르고 넓게 거친 붓 터치로 페인팅하여 티셔츠 전면을 채우고, 펄이 들어간 화려한 색상을 이용함으로써 블랙 바탕에 대비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심장, 관, 무덤을 상징하기 위해 각 붓 터치상단 부분에 ♥ 무늬와 이를 둘러싸는 사각형 테두리,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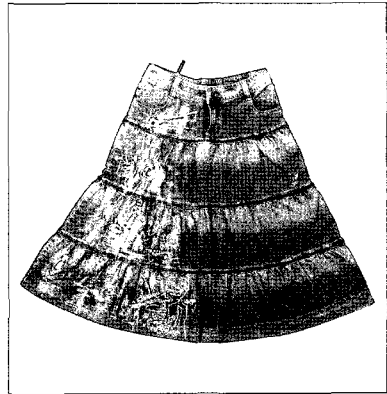
<그림 15> Untitled(detail), 1986



<그림 16> 죽음의 이미지표현, 2005



<그림 17> 경쾌한 죽음의 이미지



<그림 18>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이미지, 2005

타로 그려 넣었다. 하단 부분에는 해골을 덧그렸으며, Heaven, Hell, Death 등의 단어를 그려 넣음으로써 죽음의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반어적으로 전체적인 화려함과 경쾌함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어 페인팅하였다.

〈그림 18〉은 블루진으로 만든 티어드 스커트를 이용하여 색채대비를 극대화시켜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티어드 스커트 자체의 면 분할을 가로질러 레드 계열의 색상으로 거칠고 투박하게 넓은 붓 칠로 페인팅하여 스커트 본래의 색과 뚜렷한 색채대비를 이루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위로 황금색 구타로 낙서하듯이 덧칠함으로써 화려함을 더하였고, 여기에 세포, 해골, 눈 등을 그려 넣고 피를 흘리는 듯한 레드 계열 색상으로 주제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스키아 회화의 조형기법 및 주제를 살펴 보았다. 바스키아는 현대미술의 표현기법이나 스타일을 응용하면서도 대부분 회화(戲畵)를 가하지 않은 원시성을 표현하였고, 격렬하게 낙서화된 배경을 특징으로 거칠고 복잡하면서도 직감적·충동적이고 직선적인 표현터치로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현대적인 메시지를 표출시켰다. 또한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예술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흑인역사 및 대중문화를 자전적 경험과 함께 표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스키아의 작품세계를 분석·유추한 결과인, 자전적 경험, 인종주의, 만화테마, 금전적 가치,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 및 조형방법을 바탕으로, 대중적 문화코드인 진(Jean)과 티셔츠(Tee Shirt)에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재해석·재구성하여 패션페인팅 실제 작품 제작을 시도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첫째, 낙서화 가로서 바스키아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 상징적 기호와 문자 등을 이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드로잉하였고, 둘째, 사물의 형상을 재조직하여 극대화함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셋째, 강렬한 색채를 소재 본래의 색상과 조화 혹은 대비가 되도록 하면서 과감하고 거친 듯한 붓 터치와 세심한 덧칠로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응용하여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패션페인팅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에서는 바스키아의 그래피

티에서 사용된 Liberty, Teeth, Blood 등의 상징적 기호와 연구자의 상징적 기호인 Time, Work 등의 반복적인 삽입을 칼라라이트, 빼베오 페인트를 이용하여 표현적인 붓 칠 및 강렬한 색상대비를 통하여 바스키아의 대담하고 그래피티적인 기법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둘째, 인종주의에 관한 주제에서는 차별과 편견, 정복, 억압 등을 나타내고자 Negroes, Dark Continent 등과 이라크전을 상징하는 기호들을 주로 빼베오 페인트를 사용하여 형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조형기법을 최대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셋째, 만화테마에 관한 주제에서는 대중소비문화의 도상을 주제로 표출하고자 만화에서 차용해 온 도롱뇽, 공룡, 왕관 등의 형상을 재구성하여 화려한 장식적 효과를 내기 위해 칼라라이트, 빼베오 페인트로 페인팅하여 바스키아의 그래피티한 조형기법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넷째, 금전적 가치에 관한 주제에서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자, 직접적인 단어인 cent, sale, \$, won, money 등을 작품 속에 삽입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비를 이루는 강렬한 원색 또는 황금색 빼베오 페인트를 사용하여 표현적인 붓 칠로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효과를 응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섯째, 해부학과 죽음에 관한 주제에서는 핸드 프린팅, 눈, 뼈다귀 등의 해부학적 요소와 십자가, Heaven, Hell, Death 등 죽음에 관한 상징의 반복적인 삽입, 그리고 레드 계열의 칼라라이트를 주로 사용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패션페인팅 작품을 통해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현대패션에 재해석하고자 내용을 분석, 고찰해보았으며, 차후 패션페인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바스키아의 작품을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광우(1997). *워홀의 친구들*. 서울: 미술+문화.
 니콜라스 마르조예프 저, 이윤희, 이 필 역(1999). *비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루시 스미드 저, 김춘일 역(1992). *현대미술의 흐름: 1945년 이후*. 서울: 미진사.
 박규형(1991). *워홀과 바스키아의 세계*. 서울: 공간.
 엄 혁(1989). *대안의 문화 대안의 공간*. 서울: 월간미술.
 윤난지(1996).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서울: 월간미술.

윤현덕(1999). Jean Michel Basquiat의 회화세계 연구. 경
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태호(1989). 80년대 미술의 확산과 반작용. 서울: 월간미술.
이태호(1989). 장내미술과 장외미술. 서울: 월간미술.
정미희(1990). 독일표현주의 미술. 서울: 일진사.
정병국(1996). 장 미셸 바스키아의 예술. 영남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정삼호(1996).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최재경(1993).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토니 고드프리 저 배경숙 역(1995). 신표현주의. 서울: 열화당.
홍대일(1989). 장 미셸 바스키아의 돌연한 죽음. 서울: 월간미술.
Andrew, Decker (1989). *Price of Fame*. Art New.
Fineberg, Joanthan (1994). *Art since 1940*. Prentice-
Hall.

Honnet, Klaus (1998). *Contemporary Art*. Taschen.
How Joonchi 저 윤동순 역(1983). *New Painting: 사회
현상으로서의 뉴페인팅(New Painting as Social
phenomena)*, 공간.
<http://jmbasquiat.new21.or>
Kertess, Klaus (1994). *Brushes with Beatitude*. N.Y.:
Whitney/Abrams.
Kim, Levin (1991). *Andy Warhol & Jean Michel
Basquiat*. Exhibition Catalogue, Sonje Museum.
Marshall, Richard D. (1994). *Jean-Michel Basquiat*.
N.Y.: Whitney Abrams.
Robert, Storr (1990). *Basquiat Drawing*. N.Y.: Robert
Miller Gallery.

(2006년 2월 13일 접수, 2006년 4월 18일 채택)